

비트코인, 한 달 새 24% 급락... 저점구간 재매수 나설 듯

美 연준 금리인상 3차례 가능성 불안한 투자자 일제히 팔아 치워 3개월 만에 5200만원대로 하락 현재 상승동력 없어 하락세 지속 저점 판단시 대규모 매수세 예상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한달새 24%나 급락했다.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업계에서는 가격이 저점에 근접할 경우 대규모 매수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암호화폐 시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지속 하락으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3개월 만에 5200만원대로 하락했다. 한달 전(69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24.6%가 급락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9일 8200만원을 넘기면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미국 연준의 3월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 중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

투자자들이 일제히 팔아 치웠다. 또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 3차례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주기영 크립토크트 대표(왼쪽)가 유튜브 '알고란TV'에 출연해 비트코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알고란TV 화면 캡처

연말밸리로 반등할 것이라 긍정적인 전망도 빛나갔다.

투자심리(투심)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5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투심은 더 악화됐다.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

려할 때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종료 시점도 올해 3월로 앞당긴 만큼 연준이 빠르면 3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에 넣어 두었던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연준

이 2017년, 2018년 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암호화폐가 대폭락 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점이란 판단이 확산하면 대규모 매수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기영 크립토크트 대표는 유튜브 '알고란TV'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하나의 상승장 중 하나가 끝난 것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 데이터 상에서 움직임이 많아야 하지만 고래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며 "현재 시장 상황은 상승장과 하락장의 중간으로 기업들이 주로 매수한 레벨인 3만달러~4만달러에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서 하락세가 지속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은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선 말하는 저점구간에 진입할시 고래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저점매수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고양 창릉 등 관심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12개 지구서 1만3552가구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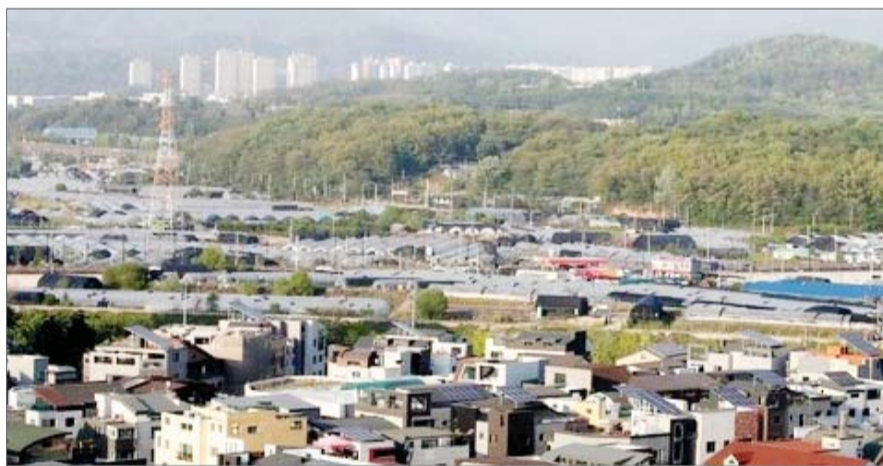
오는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1만 3552가구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은 7152가구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된 1차 사전청약에 9만여 명, 10월 2차 사전청약에 10만여 명, 11월 3차 사전청약에 7만여 명이 신청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4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지구별로는 ▲인천계양 302가구 ▲남양주왕숙 2352가구 ▲부천대장 1863가구 ▲고양창릉 1697가구 ▲성남금토 727가구 ▲부천역곡 927가구 ▲시흥거모 1325가구 ▲안산장상 922가구 ▲안산신길 1372가구 ▲서울대방 115가구 ▲구리갈매 1125가구 ▲고양장항 825가구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뉴시스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대다. 고양창릉은 4억~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공급유형, 신청자격, 청약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일반

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 기간3년·청약저축납입금액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18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또 19일부터 21일까지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K-OTC 거래대금 1.4조 '역대 최대치'

중소 9335억 전체의 66.9% 시장 기업수 총 145개 사 집계

지난해 K-OTC 시장이 연간 거래대금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금액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

금융투자협회는 6일 '2021년 K-OTC 시장 동향'을 통해 2021년 K-OTC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51억5000만원) 대비 4억9000만원(9.5%) 증가한 56억4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혜택, 미래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로 거래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군별로는 중소기업이 9355억원 거래대 전체 거래대금의 66.9%를, 중견기업이 566억원으로 4.0%를 차지했다.

시가총액은 전년 말 대비 14조원 증가한 31조원을 기록했다.

거래기업수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기업 41개사, 지정기업 104개사로 K-OTC시장 기업수는 총 14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총 16개사가 K-OTC시장에 진입했으며, 이 중 등록기업은 역대 최다인 9개사, 지정기업은 7개사다.

금투협은 "16개사 중 12개사가 지정동서 제출 또는 등록신청을 통해 시장에 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시장 참여가 활발했다"며 "2차전지 전해액,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시장에 편입돼 거래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K-OTC시장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으로서 원활한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 중이다.

등록 및 지정기업은 2021년 중 유상증자 및 사채 발행을 통해 총 496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2014년 8월 K-OTC시장 출범 이래 총 3조4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KB증권 KB 에이블 발행어음 금리혜택 이벤트

KB증권이 'KB 에이블(able) 발행어음'에 다양한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KB able 발행어음'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KB증권(신용등급 AA+)이 직접 발행하고 원금과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유동성 상품이다.

KB증권이 준비한 첫 번째 금리혜택은 'KB able 발행어음 신규고객 특별 제공 이벤트'다. 개인 신규고객 및 휴면성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발행어음 6개월물 연 2.8%(세전), 발행어음 12개월물 연 3.2%(세전)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한도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다.

두 번째는 CMA 발행어음형 기본금리에 0.1%포인트(p)의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KB able CMA 발행어음형 금리플러스 이벤트'다. 대상은 KB증권 CMA 발행어음형 기 보유 고객 중 최근 3개월간 잔고가 없었던 미사용 고객과 2022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채널을 통해 CMA 발행어음형을 최초 신규 개설하거나 KB증권 CMA의 타 유형에서 발행어음형으로 최초 유형을 변경한 고객이다.

/박미경 기자

금투협 부동산 개발금융 실무 집합과정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 금융 관련 업무 실무자를 위한 '국내 부동산 개발·금융 실무'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부동산 개발·금융 실무' 과정은 오는 2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2월 21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개발 관련 법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

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또 부동산 개발·금융 분야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수강생은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책 및 발전방향 등을 학습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0일(40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